

□ 특별대담-이 시대 사상의 비전을 모색한다

혼란과 허무의 벽을 넘어서

“기존 사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 불가능한 현 시대에 여러 담론을 서로 비교해 본질적 대안을 찾는다”

정 연 교

〈본교 철학과 교수·윤리학 전공〉

“경건하면서도 검약하는 자세인 성리학의 보편적 사유를 이 시대에 다시금 되새겨 사상 부재시대를 극복한다”

배 병 삼

〈성심외전 정치학 교수·한국정치사 전공〉

근대화를 거치며 인류는 마르크시즘을 비롯한 여러 사상 속에 정신적 이상을 간직해 살 아왔다. 하지만 탈산업화, 후기 산업화로 치달으면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속에 허무주의, 상대주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어느새 이 시대는 사상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가 부재하다면 나아가야 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신문은 창간특집을 맞이하여 동서양 사상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사상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가졌다.

〈편집자〉

배병삼(이하 배):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연교(이하 정): 안녕하십니까? 좋은 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 정교수님도 강의를 하고 계시니만큼 학생들이 취업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인문학을 등한시 하는 경우를 보실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질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현 사회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 보여 집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와같은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전반적으로 위기상황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구조와 맞물린 문제로 물질적 토대가 지나치게 한쪽 측면을 강요하는 결과 파생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자본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배: 전통적 입장에서 인문학이 정치, 경제를 이끌고 계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왔다고 봅니다. 특히 성리학적 입장에서 그러한 비전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다고 주

장하는데 나 자신을 탐구함으로써 그 속에서 올바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 입장은 한꺼번에

신의 이름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에 몰락하여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자본제적 삶에 맞지 않았던 형태였기 때문에 철저히 쇠퇴한 것입니다.

정신가치지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같은 실질적 사유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까지 서구 사조상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정: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사상의 유형은 자유주의, 개인주의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것은 자기가 안다'는 말은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결국은 파편화된 개인을 낳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치관을 독립적으로 세우고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의 출현을 기점으로 근대에 들어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토마스 쿨의 통합불가능성이론이 나타나 어떤 이론도 그 자체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절대적 가치들이 송두리채 무너져가는 경향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한국사상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은 이미 한국 현대사가 겪었던 역사라 생각합니다. 근대의 건설이란 미명아래 우리는 우리것의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충분히 해오고 있는 고민들을 이미 우리의 전근대에서 자행해왔다고 봅니다.

정: 선생님이 한국근대사를 보는 입장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잠시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 사조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고 또다른 하나는 삶의 양식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하지만 삶의 양식으로서는 포스트모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평기움약을 한다는 뽀빠통스타킹이란 그룹이 나와 TV앞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모습이 그나마 포스트모던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을 신뢰하던 움직임도 과학이론 내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론 외적인 문제로 환경오염, 핵폭발 등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믿게 되었고 객관성을 담보한 지식도 없으니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수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제약을 받아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처사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개인의 의

견, 과학의 이름, 신의 이름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배: 뽀빠통스타킹의 경우 자아, 삶, 혹은 관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해석이 있고난 후 공인으로서의 표출을 했는지 일본 패션잡지등 외래문화를 받아들이 행한 행위인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철학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행태학과 관련성, 동양사상과의 관련성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중세이후 근대적 계몽주의의 이성우월성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신념이 깨어지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맹신을 타파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서양과학이 가지고 있던 이분법 기계론적 사상, 환원주의들이 부정되면서 무언가 서양식으로 생각되지 않는 요소들이 들어올 여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요즘 학계에서도 동양사상을 다시 고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이론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한반도는

아직 지적 식민지

나 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배교수님은 앞으로 과도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형태로 형성될 사조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배: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 하

는 것이 종교에서부터 지적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있기 때문에 '지적공황'이라 할 만큼 혼돈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유기적인 새로운 사유가 이 땅에서 발화되어야지만 진정한 혼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적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 식민지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닌 이들이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들의 연구과제를 기준 삼아 자료를 추스르는 모습들을 이제는 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적, 기점을 통일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여 파악하고 싶습니다. 통일이란 것을 기점삼아 50년동안 이질적으로 살 아온 두 민족을 지성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킬것인지 우리 지성계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제기도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교수님은 서양철학에선 근대이후 새로이 형성될 사조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정: 사상적 틀은 자유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근본적 정신은 '합의에 의한 것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사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철저히 포스트모던화된 이후라고 한다면 문화의 정체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 소위 커뮤니테리아리즘(Communitarism - 공동체주의)이라 불리우는 철학이념이 미국등을 중심으로하여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었고 한국에서 적절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인간의 성격을 규정짓기를 '사회적 동물' 혹은 '정치적 동물'로 규정지어 공동체를 떠나선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대에 루소, 헤겔도 그러한 맥락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이후 칸트나 그밖의 공리주의자들의

우리는 보편의 윤리였습니다. 칸트는 '자기의 준칙이 보편법(Universal law)이 될 수 있을 때 그 준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정언명법을 주장하며 개인적, 지역적 관계를 부정합니다. 어떤것의 가치관이 옳고 그른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공동체를 떠나서

역사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 필요하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서양의 합리주의적 발상의 단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동양의 자연친화사상은 예전보다 서양철학자에게 높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봅니다.

배: 저도 10년간 동양학문을 공부하면서 서양철학자들이 동양철학에 대해 비참한 관심을 갖는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식민지적 지성의 문제, 즉 남의 머리로 사유하던 것이 적어도 실학자들까지가 그랬다면 그 이후 1백 50년간은 학(學)하 기만 했지 진정 문(文)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문탐구와 오늘날 인문학자 위기의 극복방법, 대학사회에서 인문학 소생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인문학의 위기, 학문을 올바르게 하는 자세, 새로운 이상주의 등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사상의 틀을 완전히 바꿔가며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특정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의견들은 더욱 다극화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담론이 서로 비교되고 그 중 본질적인 대안으로 동양사상의 강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동양사상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 전통적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급격히 바뀐 삶의 양식, 물질적 토대는 우리의 과거에 바라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의 역사에 접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통에 접근해야겠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지식있는 사람들, 돈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잡아오는 매력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겨레가 나가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통일국가에 대한 모습은 성리학의 보편적 사유인 경건하면서도 검약하는 자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배: 정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대담일시: 97년 5월 7일
사진·정리: 김동욱 기자

3,000원의 작은 정성이
이천만 북녘 동포를 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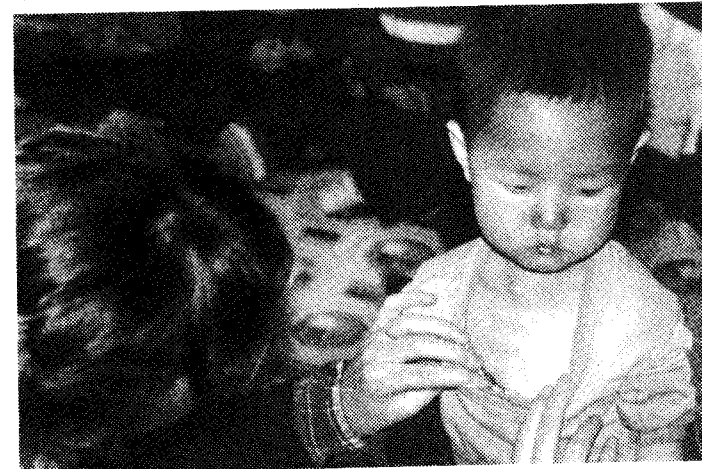


멀건 옥수수죽과 나물 한접시
북한 어린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전부입니다
지금은 그 옥수수죽도
바닥이 나있을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멀리도 아닌 북녘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씩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희학원 거래사랑 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식사 및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한끼 굶은 돈 3,000원이 비록 적다해도

북녘 동포들이 한달간 생명을 이어갈 옥수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거나 서로 함께 할 때

매마른 북녘 대지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총화생회(961-0650)/(0331)280-2800)

경희학원 거래사랑 운동본부

대학주보사 호림전문대학총학생회 서울캠퍼스총학생회 경희민주운동회
수원캠퍼스총학생회 경희대학교노동조합 대학원총학생회
경희의료원노동조합